

광나루의 그 '사건'이 내 삶의 변곡점 나룻배 타고 한강 건너... 평생 '종' 이 되길 다짐

1950년 6월 28일. 내 삶의 변곡점이 된 날이다. 이 날을 계기로 나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이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 짐작하겠지만 한강 인도교가 끊어진 날이다. 북의 인민군이 남침을 개시한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군 당국이 서둘러 다리를 폭파해 수십만 서울 시민이 적치하에서 고초를 겪었지 않은가.

나는 그 전날 떠나지 않겠다는 형님내외를 강요하다시피해 피란을 보냈다. 다음날 자고 나니 수도 서울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서둘러 광나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 두척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저 배만 탈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다짐 또 다짐했다.

나룻터에 갔는데 웬걸, 파발총을 든 인민군 병사 둘이 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피란민들의 승선을 저지하기는커녕 못본 체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란민을 가장한 인민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때 배를 못탔다면? 나는 꼼짝없이 북으로 끌려갔을 거다. 공산당이 제일 미워한다는 ‘예수쟁이’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터지기 전 형님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문기야, 너도 이제 무엇을 할 건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니? 육군사관

학교에 가든지,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력이었다. 솔직히 그때는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광나루의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 약속이다. 육사 대신 신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원에 도착한 나는 서울대 사대 동기생을 만났다. 이일철(훗날 인천교육대학 학장)과 함께 10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 조직을 꾸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학도의용대다.

우리는 부산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일본에 가 미 육군 제 7사단에 배속됐다. 이곳서 실전에 가까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7사단은 미 해병대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될 부대였다.

그날(9월 15일) 우리는 인천 앞바다 월미도에 역사적인 발을 내딛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탄 군함엔 일본 주둔 연합군최고사령관 겸 유엔군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한창일 때 공교롭게 병을 얻었다. 탈장으로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군복을 벗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광나루에서 그 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부산에 있었던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서울대 복학

은 포기한 채.

여기서 잠깐 형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겐 평생의 ‘멘토’이자 ‘스승’이나 다름없던 분이시다. 그 분의 이름은 류형기.



류문기 동문은 6.25 참전 용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 유공자 증명서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육사 갈 것인가, 신학교 갈 것인가 번민 재학시절 우익활동, 사진 몽땅 불 태워



류형기(왼쪽) 전 한국감리교 감독과 함께.

6.25 와중에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다.

우리 가족의 고향은 평북 영변이다. 김소월의 시 ‘약산의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아버님은 독실한 교인이어서 형님을 서당 대신 미션스쿨에 보내 신식 교육을 받도록 하셨다.

일찌기 미국 유학(하버드)을 다녀오셨는데 형수님(신형숙)을 유학중 만나 보스턴서 혼례를 치렀다. 형수님은 김활란 박사의 1년 선배로 3.1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옥고를 치르신 독립유공자이시다.

해방 후 미 군정이 실시되자 또래의 유학파들이 군정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권력의 단 맛을 만끽했으나 형님은 인쇄소(조선인쇄주식회사)를 맡겠다고 자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각종 기독교 서적은 물론 한영사전, 영한사전도 직접 저술하는 등 한국 출판계의 틀을 잡았다.

형님의 일생은 책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음의 병상에서도 펜을 놓치 않으셨다. “~삼십일만 주시면 구약을 마치고 갈 터인데, 저를 데려가 뭘 하시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형님이 유연처럼 남기신 말이다.

다시 내 얘기로 되돌아 온다. 나도 형님처럼 미국유학을 다

녀와 대전감신(목원대학) 교수로 부임해 후진 양성에 힘을 보탰다. 이 때 아내(류한나)를 만나 세 아들을 얻었으니 그런 축복도 없었지 싶다.

이후 연세대 의료원(세브란스)에서 교목 겸 원목으로 6년 여를 일하다가 1978년 미국에 이민을 왔다.

개척교회로 시작했다. 신자는 10명 남짓. 은퇴할 때쯤에는 300명이 훌쩍 넘었다. 광나루에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는지 내게 과분한 은총을 내려 주셨다.

은퇴 후 처음으로 대륙횡단을 했다. 캐나다에선 부고시절 절친 윤수현(의사)을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다. LA로 돌아와선 양로병원(그랜드 파크)에서 봉사활동을 거의 20년이나 했다. 성경이나 신문을 읽어 주는 등 노인들의 귀와 눈이 돼 노년의 삶을 이들과 함께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남가주선농합창단에서 활동해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후배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다 보면 격동기의 학창시절이 아련히 떠오른다.

사실 내겐 그 시절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부고 재

학시절 학생운동(우익)을 했기 때문이다. 6.25가 터지자 사진들을 몽땅 불에 태워버렸다. 지금도 가끔 그래도 몇 장 쯤은 남겨뒀아 했는데... 후회막급이다.

건강은 썩 좋은 편이다. 시력도 청력도,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수치다. 아내의 ‘건강밥상’ 덕분이다. 지난해엔 5년짜리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받았다. 집안에 탁구대도 갖다 놓고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 ‘핑퐁 배틀’을 벌인다. 아직은 기량이 녹슬지(?) 않았다.

이제 내 나이 구순이 넘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할 삶의 궤적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찌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가치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을 연말 송년모임에도 나가 후배 동문들과도 스스럼없이 재밋

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박흥주 남가주총동창회장이 우리 부부에게 ‘라이드’를 주겠다고 다짐했으니 올해는 만사 제쳐놓고 꼭 참가하겠다.

형님 류형기는 한국감리교 감독 은퇴 후 20년 넘게 양로원 봉사

